

존 Hicks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비평

A Criticism of John Hick's Copernican Revolution

제해종
삼육대학교 신학과

Haejong Je(jehaejong@hotmail.com)

요약

이 논문은 Hicks의 자칭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의 기독교론에 대한 연구이다. 전직 기독교 신학자였던 Hicks은 기독교 핵심 교리들 중 하나를 거부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기독교론적 재해석을 통해 아가페 기독교론, 영감 기독교론, 그리고 신화 기독교론으로 자신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제시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전한 그의 세 기독교론이 통시적으로 논의되고 평가될 것이다. 첫째, 아가페 기독교론은 성육신이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대에 다른 정도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결과적으로 아가페 기독교론은 예수를 한갓 인간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시킨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둘째, 은혜의 역설 혹은 영감 기독교론은 성육신을 하나님께서 영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유로운 반응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 기독교론은 하나님의 성육신이 누구에게서나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일어날 수 있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영감 기독교론에 따르면 예수는 기독교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문자적인 의미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셋째, 신화 기독교론은 성육신이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신화로 본다. 비록 Hicks이 후기 저술들에서 그것이 '신화'보다 긍정적인 의미를 함축한다는 이유로 신화 대신 '은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것 역시 성경의 문자적 및 역사적 진실성을 거부하기는 마찬가지이다. Hicks의 신화 기독교론은 예수의 성육신을 문자적, 역사적 진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소위 말하는 Hicks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의 기독교론이 다원주의적 세계와의 소통을 위한 진지한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종교적 상황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으로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연구를 끝맺는다.

■ 중심어 : | 존 Hicks |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 신중심적 종교다원주의 | 아가페 기독교론 | 영감 기독교론 | 신화 기독교론 |

Abstract

This is a study of Hick's self-described Christological 'Copernican revolution.' Since Hick as a former Christian theologian did not want to reject one of the core Christian doctrines (incarnation), he presented his copernican revolution in terms of Agape Christology, an inspiration Christology and myth Christology through his Christological reinterpretation. Thus Hick's Christologies that are developed gradually are discussed and evaluated chronologically. First, agape Christology understands that the incarnation is taking place all the time in different degrees everywhere. As a result agape Christology makes Jesus as a mere human being. Second, an paradox of grace or inspiration Christology views the incarnation as the Spirit of God enabling people to fulfill the will of God by their free responses. This Christology assumes that divine incarnation can occur anywhere and anytime in any person. Thus, according to this, Jesus is not literally God incarnate as Christian claims. Third, myth Christology views that the incarnation is not literal but mythological. Though he prefers to use metaphor in his later writings because it has a more positive connotation than myth, myth and metaphor have one thing in common: they are neither literal nor historical. Hick's mythological Christology implies the denial of Jesus Christ as God incarnate. Accordingly, the researcher must conclude that Hick's Christology as copernican revolution cannot said to be a perfect solution for today's religious situation, even though it was a sincere try to communicate with pluralistic world.

■ keyword : | John Hick | Copernican Revolution | Theocentric Pluralism | Agape Christology | Inspiration Christology | Myth Christology |

I. 서론

이 논문은 존 히(John Hick)이 ‘코페르니쿠스적 혁명’(Copernican revolution)이라 칭하는 기독교에 대한 재해석과 그의 신중심적 종교다원주의를 다룬다. 히는 “지구가 회전하는 우주의 중심이라는 신조로부터 태양이 그 주변을 도는 지구를 포함한 모든 행성의 중심에 있다는 깨달음으로의 전환”[9]을 의미하는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기독교 신앙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라는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중심이라는 생각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기독교의 전통적 배타주의가 가진 한계를 극복할 모델로 히가 제시한 종교 간의 갈등에 대한 해법이다. 그의 신중심적 종교다원주의는 세계의 모든 종교들을 하나님이나 혹은 “실재에 대한 동등하게 진정한 반응들”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종교들이 모두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본다[25].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기독교의 전통적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배타주의와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의 길이라는 다원주의 사이의 충돌에 대한 해법을 그는 자신의 그리스도에 대한 독특한 이해인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의 기독교론으로 대표되는 신중심주의적 종교다원주의에서 찾았다. 그가 찾은 해법은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되는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것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히는 자신의 신중심적 종교다원주의를 위해 한 가지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되며, 그것이 바로 기독교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배타주의적인 입장에 기초한 전통적 기독교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즉 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새롭게 해석하는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의 기독교론을 제시함으로써 배타주의적 기독교와 종교다원주의 사이의 충돌을 피하고자 했다. 만약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에 비유한 히의 기독교론적 재해석이 종교적 충돌의 문제를 해결할 유효한 모델이라면 신중심적 종교다원주의는 성공적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의 기독교론은 종교다원주의를 평가하기 위한 중

요한 시금석이 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히의 종교다원주의를 향한 여정에서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되는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의 기독교론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과연 종교다원주의와 배타주의적 기독교 사이의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이 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그의 기독교론에 대한 평가는 전통적인 기독교론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이는 그의 기독교론적 재해석이 전통적 기독교 입장과는 모순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의 기독교론적 재해석이 기존의 기독교론적 모델과도 문제없이 조화를 이룬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가 제시한 모델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II. 히의 영적 순례

히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 할 수 있는 기독교론적 재해석을 논하기에 앞서 그것이 출현하게 된 토양 역할을 한 그의 인생 여정, 특별히 영적 순례를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인데, 그 이유는 히의 독특한 인생 여정 없이는 그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의 기독교론은 출현조차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히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의 기독교론은 단순히 지적 탐구의 결과가 아닌 생애 전반에 걸친 고뇌의 산물이었다. 히에게 있어서 전통적이고 배타주의적인 기독교론은 기독교가 다원주의적 세계와 소통함에 있어서 주된 장애물이었는데, 그의 인생 전반에 걸친 영적 순례는 그것이 어떻게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으로 탈바꿈했는지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히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은 보수적 그리스도인에서부터, 자유주의 신학자로, 그리고 급기야는 종교다원주의자의 영적 순례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히는 전통적 영국 국교회 신자 가정에서 출생하고 성장하였다. 훗날 영국 에든버러의 노스엄버랜드(Northumberland)에 위치한 벨포드 교회(장로교)의 목사로 지내다가 코넬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은 물론 캠브리지 대학의 신학 교수로 봉직하기까지 그는 보수적인 기독교인이었다[10]. 하지만 히가 영국에서도 다인종과

다문화적 성격이 짙은 버밍햄 대학 교수직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부터는 이전의 산발적이던 다원주의가 싹트고 꽃피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그가 캘리포니아의 클레르망 대학으로 옮기면서 그의 다원주의는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게 되는데, 이 시기의 학은 더 이상 전통적인 배타주의적 기독교 신학자가 아닌 다원주의 철학자였다. 따라서 학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의 기독교론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 사상의 배경이 되는 그의 영적 순례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1922년 성공회 가정에서 태어나 유아세례를 받은 다음 18세 때 학은 깊은 신앙적 체험을 통해 개심을 경험하게 된다. 개심 후 학은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모든 복음주의적 신학 일체-성경의 축자영감, 창조와 타락, 성육화였고, 동정녀에게서 나셨으며, 자신의 신성을 인식하며 신성한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의 피를 통한 죄와 죄책으로부터 구원, 예수의 육체적 부활, 승천, 그리고 영광스런 미래의 강림, 천국과 지옥-를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다.” 그는 이때의 경험을 “근본주의적 개심”[15]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전통적, 배타주의적 기독교 신앙으로의 개심을 계기로 그는 캠브리지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다. 2년 반 동안 한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는 지극히 전통적이고 성서적인 설교를 했고, 훗날 코넬 대학에서 종교철학 교수로 재직할 때도 여전히 보수적인 기독교 신학자였다. 코넬 대학 재직 당시 그가 *스코티시 신학저널(Scottish Journal of Theology)*에 발표한 도널드 베일리(Donald Baillie)의 기독교론을 비평하는 소논문 역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의 전통적인 입장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그 후 학은 장로교 계통의 보수적인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게 되었을 때, 목사 신입서를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장로교 목사이자 교수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충실해야 할 그가 예수의 성육신 교리를 믿으면서도 동정녀 탄생 교리를 받아들이는 데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하나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때 그는 예수의 동정녀 탄생 교리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다원주

의 쪽으로 서서히 기울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10]. 이렇게 미국에서 8년간을 교수로 재직한 다음 학은 영국으로 돌아가 캠브리지 대학 신학부에서 1964년부터 3년간 강사로 지내면서 *신학전망(Prospect for Theology)*이란 학술지에 기로에 선 기독교론(“Christology at the Cross Roads,” 1966)이란 소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자유주의 신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 소논문에서 학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정도의 유일성”[6]이지 전통적인 기독교가 주장하는 종류의 유일성이 아니라는 쪽으로 기울면서 비록 그가 기독교 신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다원주의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징후를 드러냈다.

그러던 중 1967년에 다문화, 다인종의 버밍햄 대학으로 옮겨가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학은 종교다원주의에 심취하게 된다. 버밍햄은 다문화적, 다인종적, 다종교적 도시로서 다원주의가 꽃피기에 최적의 토양이었다. 그곳은 1950년대와 1960대에 카리브해 섬들과 인도 등지에서부터 밀려들어온 이민자들이 정착한 영국 중부의 도시로서 이슬람교인, 시크교인, 힌두교인, 불교인은 물론 오랜 전통을 지닌 유대인들까지 존재하는 독특한 도시였다. 이들 인종 및 종교인들과의 접촉은 학으로 하여금 기독교 중심적 종교관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강한 인식을 심어주었다. 버밍햄 대학에 재직하던 15년 동안 학은 이런 세계의 여러 종교들을 깊이 접할 기회를 가졌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인도(힌두교), 편잡(시크교), 스리랑카(불교) 등지를 실제로 방문했고, 또 1975년에는 힌두교,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그리고 시크교까지 포함된 다종교 단체인 <버밍햄 이교파간 협의회>(Birmingham Inter-Faiths Council)의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 때 그는 왕성한 저술 활동도 병행했다. 그의 종교다원주의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죽음과 영생(Death and Eternal Life, 1976)*이 바로 이 시기에 출간되었고, 마이클 굴더(Michael Goulder)와 공동으로 편저한 *성육하신 하나님의 신화(The Myth of God Incarnate, 1977)*와 다수의 소논문들도 이 때 발표되었다. 특히 기독교론과 관련하여 그의 입장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감지되는 *성육하신 하나님의 신화*는 성육신이 기독교와 타 종교 사이의 갈등의

핵심임을 인식한다. 이 책에서 그는 “비유적인 하나님의 아들”(a metaphorical son of God)이 역사적 과정을 거치는 동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아들”(a metaphysical God the Son)로 확대해석 되었다고 주장한다[7].

끝으로 희의 종교다원주의가 최고의 절정기에 이르러 결실을 맺은 시기는 바로 캘리포니아의 클레르망 대학원대학교에 있었던 시기(1978-1992년)였다. 이곳에 있는 동안 그는 수많은 국제 종교철학 학회들에 깊숙이 관여함으로써 각 종교 분야별로 세계적인 권위자들과 깊이 교류할 기회를 가졌다. 이들 중 몇몇만 언급하자면, 하버드 대학의 윌프레드 C. 스미스(Wilfred C. Smith), 소르본 대학의 무함메드 아르쿰(Muhammed Arkoun), 도쿄 대학의 다케우치 요시노리(Takeuchi Yoshinori), 그리고 히브리 대학의 즈위 웨블로스키(Zwi Werblowsky) 등이다. 특히 이슬람교의 권위자인 스미스는 그의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평생의 좋은 친구요 멘토가 되어 상호간에 깊은 학술적, 철학적 영향을 주고받았다. “종교적 개념의 발달을 구별된 역사적 현상”[17]으로 보는 스미스의 영향으로 희는 종교를 하나의 전통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또한 이렇게 발생한 종교적 전통들을 “고착화된 본질들이 아닌 살아있는 운동들”[23]로 보았다. 이것이 만약 기독교의 성육신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전통적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성육신에 대한 이해도 고착화되지 않고 시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스미스의 이런 사상은 훗날 희의 사상적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바로 이곳에서 그의 신중심적 종교다원주의의 결정체인 *종교의 해석(An Interpretation of Religion, 1989)*이 출판되었고, 또한 그의 기독교론의 집약이라 할 수 있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은유: 다원주의 시대의 기독교론(The Metaphor of God Incarnate: Christology in a Pluralistic Age, 1993)*이 탄생하기도 했다.

III.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수십 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발전한 희의 종교다원

주의는 그의 기독교론의 변모와 궤를 같이한다. 희의 종교다원주의는 신중심주의로 규정될 수 있는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성육신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히 새로운 이해 정도가 아닌 급진적 해석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세계 종교들에 대한 신중심적 종교다원주의 모델을 주창한 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는 극복되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성육신의 교리를 거부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희가 선택한 것은 교리에 대한 직접적인 거부 대신 재해석이라는 우회적 방법이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폴 에디(Paul Eddy)는 “성육신은 계속해서 희의 교리적 재해석의 주요 표적이 되었다[3].”라고 진술한다. 비록 희의 기독교론에 대한 재해석이 전통적 기독교론에 대한 직접적인 거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케이트 E. 에이텔(Keith E. Eitel)이 지적한 것처럼, 기독교적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결과적으로 “성육신에 대한 거절”[4]로 인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성육신에 대한 재해석은 성경의 역사성과 문자적 진실성을 인정하는 대신 성경을 신화로 평가절하 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희이 처음부터 예수의 메시아성이나 신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성경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전통적인 배타주의적 기독교론과 점점 거리를 두게 되었다.

여기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변모한 희의 기독교론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성육신을 정도의 차이로 이해한 초기 형태의 아가페 기독교론을 살펴보고, 예수를 영감 받은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이해하는 영감 기독교론, 그리고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신화 기독교론의 순으로 살펴볼게 될 것이다.

1. 아가페 기독교론

아가페 기독교론은 예수의 성육신을 종류가 아닌 정도에 있어서 유일한 것으로 본 노만 피탱거(Norman Pittenger)와 넬스 페레(Nels Ferre)의 ‘정도 기독교론’(degree Christology)에서 영감을 얻은 것인데[4], 이것은 예수의 성육신이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는 피탱거의 성육신한 말씀(The

Word Incarnate, 1959)과 페레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Christ and the Christian, 1958)에 나타난 기독교론을 비평하면서도 원론적으로 그들의 '정도 기독교론'에 동의하는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두 저자의 기본 전제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와 모든 시대에 본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일해 왔지만, 그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게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일하셨다[6]."는 것이다. 희은 이들의 "정도 기독교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칙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실상 독특하다(unique in fact but not in principle)고 주장한다."고 강조했다[6]. 이들이 이해한 예수는 다른 모든 인간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이었지만, 그 수준에 있어서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탁월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독특한 분으로 인정되었다.

여기서 희은 비록 그가 그리스도가 다른 모든 이들보다 독특하다는 그들의 기본 전제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성육신이 정도의 차이만을 가진 채 모든 곳에서 모든 시기에 일어나고 있다고 보았다. 이들의 기독교론에 대해 불만족한 희은 태양빛이 지표면 전체를 뒤덮듯이 신적 아가페가 예수의 아가페를 유발시킨다는 '아가페 기독교론' 혹은 신 칼케돈 기독교론을 제시하였다. 이 기독교론에서 희은 "인류를 향한 영원한 신적 아가페가 예수께서 자신이 만난 남녀를 향한 아가페를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5]. 이 기독교론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가페가 예수의 생애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임하였는데, 그 결과가 바로 예수의 성육신이다.

따라서 희은 이러한 기독교론적 가설을 통해서 몇 가지 결론들을 도출해냈다. 첫째, 예수는 오직 한 본성, 곧 "전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인간"의 본성만을 가졌다[6]는 주장이다. 희이 주장하는 신 칼케돈주의에서는 칼케돈 공의회(451년)에서 확립된 예수의 한 위격 속의 두 본성에 관한 교리는 거부되고 예수가 오직 인간적 본성만을 가진 존재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이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지도 아래 있어야만 했다. 예수는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가페가 임함으로써 전혀 다른 삶을 산 것이다. 둘째, 예수는 "하나의 의지, 곧 나사렛 예수의 의지"를 가졌는데, 그것 역시 하나님의 아가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다. 예수는 신적 의지가 아닌 나사렛 예수의 의지, 곧 인간의 의지를 가진 존재였다. 셋째, 예수는 "요한에 의해 침례를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가페에 대한 의식이 있었다. 하지만 희은 "이것이 그가 자신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 혹은 육신이 된 영원하신 로고스였음을 자각했음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주장한다[6]. 이 논문은, 길리스(Gillis)가 관찰한 것처럼, 전통적인 기독교론 전체를 거부하진 않았을지라도 "뒤 따르게 될 보다 더 급진적인 제안들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5].

오늘과 내일을 위한 기독교 신앙의 재건("The Reconstruction of Christian Belief for Today and Tomorrow," 1970)이란 논문에서 희은 몇몇 근본적인 기독교의 가르침들(동정녀 탄생, 속죄, 부활 등)을 거부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자신의 자유주의적이고 종교다원주의적 이해의 출발을 보여준다. 교회와 신학 전반에 관한 그의 개념은 기독교론에 대한 그의 급진적인 접근을 여실히 보여준다. 희은 "나사렛 예수가 기억되고, 또 그것이 계속적인 신앙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면, 내적으로 신앙적 반응이 일어나는 남녀들은 교회가 될 것이고, 또 자신들의 신앙을 개념화 하는 방식이 기독교 신학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16]. 이런 희의 논리에 따르면 신학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발전되고 또 시간 속에서 수정되고 변경될 수 있는 인간의 창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종교적 전통을 살아 있는 운동으로 이해한 스미스의 사상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23]. 그러므로 희은 세계 종교의 발전이 인간의 역사적 배경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혼란이나 창조적인 종교적 운동을 동반하는 역동적 연속성"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임을 제안한다[5]. 그에게 있어서 종교는 옳거나 그르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는데, 이는 마치 문명이 옳고 그르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과 같은 것이었다. 이것은 희이 전통적 기독교 신학과 거리를 두는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기독교 신학이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근거한 것이 아닌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것임을 드러낸다. 이런 희의 접근법은 자신의 종교다원주의적 가설이 채용한 자유주의 신학의 원칙에 그 기초를 둔 것이다.

2. 영감 기독교론

은혜의 역설 기독교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영감 기독교론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며 누구나 영감 받으면 예수처럼 될 수 있다는 전제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예수를 다른 여러 영감적인 인물들 중의 한 사람으로 취급한다. 이 기독교론은 본질적으로 아가페 기독교론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인데, 그 이유는 둘 다 예수를 유일한 존재로 보는 대신 여럿 중 하나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희는 어떻게 자신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의 일환으로 은혜의 역설 혹은 영감 기독교론을 발전시켰는가? 전통적이고 배타주의적 기독교가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유일성이 인정된다면 희의 종교다원주의는 설 자리가 거의 없어진다. 따라서 기독교의 성육신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다원주의를 인정하려는 시도로 희는 도널드 베일리(Donald M. Baile)와 지오프리 램페(Geoffrey Lampe)와 같은 학자들의 이론에 기초하여 희는 자신의 재해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은혜의 역설 혹은 영감 기독교론을 발전시킨다.

희는 베일리의 책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God Was in Christ*)에서 어떻게 그가 전통적인 기독교론을 고수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정통주의로 남는지를 보여준다. 희는 베일리가 성육신 사상 자체에 대해 비평한다기보다는 “은혜의 역설”[8]이라는 새로운 성육신에 대한 이해를 소개함으로써 현대인들에게 그것을 납득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본다. 베일리의 표현을 빌어서 희는 역설의 본질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것, 즉 자신 속에 있는 모든 선한 것, 자신이 하는 모든 선한 것이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확신에 놓여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지극히 역설적인 확신인데, 그 이유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인간의 개성을 폐지하거나 개인적인 책임을 면제시키지는 않기 때문이다[1].” 따라서 인간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자기 속에 내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것이다. 베일리는 이 원칙을 지상에서 산 예수의 생애에 그대로 적용시키면서, 예수가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닌 자기 속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 사셨다고 보았다. 희는 베일리가 자신의 새

로운 은혜의 역설 기독교론을 통해 예수가 두 본성(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는 전통적인 칼케돈적 언어를 폐기 처분한다고 보았다. 즉 예수는 신성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나 영감이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지만 오직 인성만을 가진 존재이다. 이렇게 성육신에 관한 베일리의 새로운 이론을 수용한 희는 성육신을 모두가 납득할만한 언어로 소개함으로써 자신의 종교다원주의의 중요한 토대로 삼고자 하였다.

은혜의 역설 기독교론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영감 기독교론인데, 이것은 램페가 자신의 책 *영이신 하나님* (*God as Spirit*)에서 소개한 것을 희가 수용한 것이다. 램페는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혹은 성령 하나님과 구별되는 거룩한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인간 창조물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 안에서 활동하고 계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20]. 희는 램페가 예수를 아들 하나님으로 보는 전통적인 성육신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해했다. 이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삶에 활동함으로써 개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반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 안에서 항상 활동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영감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다. 희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영으로서의 하나님의 이런 활동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간 피조물들 가운데서 항상 성육하시면서 그들의 영을 안으로부터 끌 짓고 또 그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의미이다[7].” 이것이 지상의 예수의 생애에서 그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영감 받았을 때 일어난 것인데, 이 때 하나님의 영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반응하도록 했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선행은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베일리와 램페의 견해를 수용함으로써 희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 혹은 은혜가 그들의 삶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남녀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14].”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은혜나 영감이 임하게 될 때 인간의 삶은 선을 실현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성육신의 모습이다. 그

렇다면 하나님의 성육신은 어떤 시대나 사람에게서 일어날 수 있고 또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 희은 베일리와 램페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기독교의 중심성과 수위성”[7]을 고수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당연시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고수한 것은 종류에 있어서 그가 유일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그의 반응에 있어서 그가 유일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테런스 메리간(Terrence Merrigan)이 언급한 것처럼, “다원주의 신학자들을 위한 영감 기독교론의 호소는 예수를 다른 영감 받은 종교 지도자들 중 한 사람으로 길들이도록 허락한다[21].” 은혜의 역설 혹은 영감 기독교론은 예수를 단순히 하나님에 의해 영감 받은 여러 다른 사람들 중 하나와 동일시한다. 예수는 종류에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정도에 있어서 다른 영감 받은 종교 지도자들과 구별된다.

결과적으로 희은 초기 기독교론 관련 소논문인 기로에 선 기독교론(“Christology at the Cross Roads”)에서 반대 입장에 섰던 “정도 기독교론”과 기본 전제에 있어서 일치하는 입장을 취한다[3]. 따라서 희은 “성육신이 이제 정도의 문제가 되었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영으로 충만하거나 그리스도와 닮았거나 혹은 진실로 거룩하기만 하면 그들 중에 성육신하신다.”고 주장한다[11]. 이 모델은 희이 제안하는 것처럼 “다수의 성육신”[12]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예수를 통한 역사적이고 일회적인 사건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고, 또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이 이 모델이 제시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은혜의 역설 혹은 영감 기독교론에 따르면 나사렛 예수는 전통적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처럼 문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육신, 아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혹은 인간의 삶을 사는 삼위의 제2위격이 아니다. 희은 이렇게 주장한다. “이러한 영감 혹은 은혜의 역설 기독교론 유형”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납득할만한 기독교론으로서 “종교다원주의와 조화된다[14].” 이것은 모든 사람이 그가 성령으로 채워지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신화 기독교론

희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은 성육신이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신화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신화 기독교론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하나님과 신앙들의 우주(God and the Universe of Faiths, 1973)*라는 책에서 잘 소개된 신화 기독교론은 그리스도 중심주의에서 신중심주의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준 것으로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의 결론적 내용이다. 희은 예수의 성육신이 “예수에게 문자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하지만 하나의 시적 이미지로서...그것은 예수의 종교적 중요성을 표현한다.”라고 주장한다[9]. 이 책에서 희은 결국 자신이 주장하는 기독교론의 실체를 드러내었다. 그는 예수가 성육하신 하나님이라는 진술이 문자적이라기보다는 시적, 상징적, 신화적 진술임을 암시한다[9]. 따라서 성육신이 신화라는 희의 논제는 세계의 종교에 대한 그의 신중심주의 모델의 불가피한 결과물로 소개된다.

그로부터 약 4년 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신화(The Myth of God Incarnate, 1977)*의 출판을 통해 희은 예수가 “상징적인 하나님의 아들”과 전통적인 기독교가 주장하는 “초자연적인 아들 하나님”을 분명히 구별했다[13]. 이 책에 포함된 다른 소논문인 “예수와 세계 종교”에서는 문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육신이 아닌 예수가 또 다른 형태의 성육신인 부처와 비교된다. 희은 이렇게 주장한다. “인간 고타마가 초월적이고, 선제하는 부처의 성육신으로 생각되었던 것은 마치 인간 예수가 선제한 로고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으로 생각되었던 것과 같다. ... 예수가 육신이 된 말씀이었던 것처럼 고타마는 육신이 된 다르마(Dharma, 진리)였다[13].” 희의 이런 논리에 따르면, 동일한 현상이 다른 어떤 종교적 천재에게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나 실재의 임재가 함께 하는 어떤 사람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희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성육신이라는 전통적 기독교의 가르침은 용인되기 곤란하다.

희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곧 아들 하나님이라는 논제를 문자적 진리가 아닌 “신화적 개념”으로 이해한 것은 종교다원주의를 향한 명확한 움직임이었다. 클리

포드 S. 호스피탈(Clifford S. Hospital)이 관찰한 것처럼, 그에게 있어서 예수의 성육신은 “신화적 개념”이었고, 여기서 신화의 역할은 “예수를 주님과 구주로 믿도록 하는 적절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19]. 성육신에 대한 이런 신화적 이해는 그로 하여금 종교다원주의를 향한 문을 활짝 열도록 만들었다.

에디는 희가 문자적 성육신을 거부하고 그것을 하나의 신화로 보는 자신의 이론을 주장함에 있어서 세 가지 논증을 제시한다. 첫째, 당시에 소개된 신약과 역사적 예수 연구를 근거로 희는 거의 확실히 예수 자신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가르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즉 성육신은 예수의 가르침이 아닌 후대에 발전한 가르침이란 사실이다. 둘째, 희는 우리가 4세기까지의 초기 교회에서 성육신이란 개념의 시작과 발달을 더듬어 올라가 추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것은 아마도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 확정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논의를 염두에 둔 희의 지적일 것이다. 셋째, 희는 성육신적 언어의 신화적 성격이 그것을 철학적 수준에서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가 자기모순임을 드러냄으로써 문자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즉 신화적 성격을 지닌 성육신은 아무리 철학적으로 설명하려 해도 결국은 논리적으로 일관성 없는 주장일 뿐이라는 것이다[2].

만약 신화가 문자적으로 무의미하다면, 종교의 추종자들에게 그것이 갖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희는 “신화들이 문자적 사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화적 사실이다.”라고 주장한다[18].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화에 대한 그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신화를 “말로 표현되었지만 문자적으로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 혹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 적용되지만 문자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생각이나 혹은 이미지이지만 청중에게 특별한 태도를 불러일으키는 무엇”이라고 정의한다[9]. 예를 들어, 희는 비록 6일 창조, 에덴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문자적으로 진실된 이야기들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들이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인간은 불완전한 세상에서 사는 아주 불완전한 존재”라는 진리를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8]. 신화란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

이 역사적·문자적 진실은 아니라 할지라도 청중의 태도에 변화를 초래할 기별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그가 그것에 대해 무엇을 말하려 하든지 희의 신화는 문자적으로나 혹은 역사적으로도 진실이 아니라 사실은 분명해진다.

1970년대에 제시된 희의 이런 신화 기독교론은 그의 후기 기독교론의 집약이라 할 수 있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은유: 다원주의 시대의 기독교론(The Metaphor of God Incarnate: Christology in a Pluralistic Age, 1993)*에서도 여전히 나타난다. 이 책에서 희의 신화적 기독교론은 그 정점에 이른다. 에디가 관찰한 것처럼 비록, “희가 ‘신화’라는 말을 ‘은유’라는 용어로 대체”했을 지라도 “성육신을 신화로 보는 그의 명제”는 변치 않는다[2]. 결국 희의 기독교론은 전통적인 기독교의 문자적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서부터 상징적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로 서서히 변모했다. 희의 신학적 이해 가운데서 기독교의 그리스도 중심주의는 어느새 신중심주의로 전환되는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통해 종교다원주의의 문을 활짝 열리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 중심주의로부터 신중심주의로의 전환을 이끈 희은 “신중심주의 신학의 선구자”로 불리기도 한다[18].

희는 그 책의 주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책의 주된 결론은 그 제목에 들어있듯이 하나님의 성육신이라는 사상이 참된 인간이자 참된 신으로 간주하는 그 표준 기독교 형태로는 결코 만족할만한 문자적 의미를 제시하지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탁월한 은유적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이다[12].” 문자적 의미와 구별해서 “은유”가 뭘 의미하는지를 시도하면서 희는 “은유란 비문자적 혹은 비유적인 담화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은유적 담화는 화자의 의미가 사전적 의미와 다른 언어의 사용이다.”라고 주장한다[12]. 성육신이 신화(myth) 혹은 은유(metaphor)라는 희의 논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은유*란 책의 표제에서 표현되는데, 그것은 예수의 성육신이 역사적·문자적 진실이라기보다는 은유나 혹은 신화로 이해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이 책에서 희가 여기서 왜 전통적인 칼케돈적 성육신의 기독교론을 반대하는지에 대해 에디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근본적인 논증을 제시한다. 다음은 에디의 말이다.

“첫째, 역사적 예수에 대한 가르침이나 명백한 경험도 문자적 성육신에 대한 주장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 뒤돌아보면,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으로 간주되었던 역사적 과정을 더듬어 조사할 수 있고, 또한 종교적으로는 물론 심지어 정치적으로도 인간적 동기에서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예, 니케아 종교회의). 셋째, 학에 따르면 ‘참된 하나님이자 참된 인간’이라는 전통적 모델에 대한 어떤 해석도 문자적인 의미에 있어서 의미를 가진 적이 없었다. … 마지막으로 넷째, 학은 ‘역사적으로 전통적인 교의는 인간의 커다란 악을 합리화하는데 사용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12].” 이정배가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역사적 기독교의 기독교론은 일종의 “위로부터의 기독교론”(Christologie von oben)[24]이라 할 수 있다. 즉 그는 신인(神人) 두 본질이 예수 한 사람 안에 “혼동 없이 나누어지거나 분리되지 않은 채 공존한다는 사실”이 역사적 기독교에서 논리적 정당성을 지닌 것으로 강요되었다고 주장한다[18]. 이 말은 성육신 교리가 성서에 기초한 것이기보다는 기독교 역사에서 공의회나 신학적 논의를 통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학의 이런 주장은 성서와 역사적 근거가 빈약한 것이다.

비록 학이 자신의 후기 기독교론적 저술들에서 신화 대신에 은유라고 바꾸어 표현하긴 하지만 이런 기독교론적 변화가 학의 기본적인 논제의 본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학이 일반적인 언어에서 신화가 문자적 혹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 무엇임을 인식하고, 신화란 표현보다는 허구적 뉘앙스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은유’란 표현을 선호한다. 비록 학이 신화를 “확대된 은유”로 보지만 그에게 있어서 신화와 은유는 둘 다 문자적이기도 역사적이기도 않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결국 성육신을 신화나 은유로 보는 학의 주장은 그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예수의 신성과 유일성을 인정하는 데 주저하게 했다. 따라서 오늘날 세계의 여러 종교나 사상과의 소통을 위해 학이 시도한 기독교론에 대한 재해석은 단순한 재해석 차원에 머물지 않고 결과적으로 전통적 기독교론의 기본 전제들을 거부함으로써 전통적 기독교와의 소통장애를 겪게 되었다.

VI. 결론

학은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기독교의 전통적 배타주의와 모든 종교가 하나님에 대한 각기 다른 반응으로서 구원의 길이라는 종교다원주의의 주장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충돌에 대한 해법을 기독교론에 대한 재해석인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에서 찾는다. 학이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에 비유한 기독교론적 재해석은 단순히 지적 탐구의 결과가 아닌, 그야말로 종교적, 학문적, 사회적 삶의 다차원적이며 총체적인 결과이자 영적 순례의 산물이었다. 학의 기독교론적 모델은 기독교의 배타적 입장과 세계 종교의 다양성과 복수성이라는 문제와의 불가피한 충돌을 극복하려는 그의 고뇌의 결과이다. 따라서 보수적 신학자 학이 자유주의 신학자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그가 씨름한 주제는 다름 아닌 기독교론이었는데, 그것은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아가페 기독교론과 영감 기독교론 그리고 신화 기독교론으로서 변모하면서 일어났다. 학은 교리들이 ‘고착화된 본질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운동들’이라고 주장한 스피스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처럼 아가페, 영감, 신화 기독교론이라는 형태로 점진적으로 발전한 학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의 기독교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하고 그들이 기독교에 끼친 긍정적 기여와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아가페 기독교론이란 성육신을 거부하지 않고 인정하긴 하지만 마치 태양빛이 온 지표면을 비추듯 하나님의 아가페가 예수의 아가페를 유발시킨다고 보았다. 우선 이런 아가페 기독교론이 가진 긍정적 기여는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성육신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타 종교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실제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아가페 기독교론은 예수의 성육신을 정도의 차이로 평가절하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다시 말해서 성육신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아가페 기독교론이 예수를 신이 아닌 인간으로 본다는 점은 전통적 기독교와 거리를 둔 부분이다.

둘째, 영감(혹은 은혜의 역설) 기독교론은 예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보거나 그를 다른 영감 받은 여러 종교 지도자들 중 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만 하면 성육신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이다. 이러한 영감 기독교론의 긍정적인 기여는 그것이 예수의 성육신을 거부하지 않고 인정한다는 점이다. 또한 예수가 하나님의 성육신이라는 기독교의 성육신 교리를 현대인들이 납득하도록 한 시도라는 점에서 이것은 높이 살 만 하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성육신이 세상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점은 아가페 기독교론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즉 영감 기독교론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역사적으로 유일무이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 사건들 중 하나로 받아들인다면 기독교의 토대인 그리스도가 설 자리는 사라지고 만다.

셋째, 신화 기독교론의 핵심은 그것을 문자적 진실이 아닌 신화적 진실로 본다는 점이다. 전통적 기독교와 달리 Hicks은 예수의 성육신이 문자적으로 적용될 수 없고 하나의 시적 이미지나 상징, 더 나아가서 신화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후에 그는 허구적 뉘앙스가 다분한 신화(myth)란 용어 대신 한층 더 부드러운 은유(metaphor)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가진 상징성과 방향성을 강조한다. 이것이 가진 긍정적 측면은 성육신의 상징성과 방향성을 강조함으로써 위의 두 기독교론들처럼 성육신을 거부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특히 그가 성육신을 신화로 보던 입장에서 상징으로 보는 입장으로 전환한 것은 그런 노력의 중요한 예라 할 수 있다.

하지만 Hicks이 아무리 신화나 상징이란 용어를 통해 성육신을 나름대로 인정하려 해도 둘은 모두 성육신을 하나의 문자적·역사적 진실이 아닌 하나의 상징적·은유적 진실일 뿐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전통적인 배타주의적 성육신의 교리와 대립되는 입장일 수밖에 없다.

위의 평가에 기초하여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우선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의 기독교론은 타종교나 사상과의 소통을 위한 Hicks의 진지한 몸짓이자 중

교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시도임에 틀림없다. 성육신을 단지 정도의 차이로 이해한 아가페 기독교론과 성육신이 성령의 역사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고 본 역설 혹은 영감 기독교론, 그리고 성육신을 신화로 본 신화 기독교론 등으로 대표되는 Hicks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의 기독교론은 배타적인 기독교의 태도에 변화를 촉구하는 중요한 외침이기도 하다. 하지만 Hicks이 제시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의 기독교론은 전통적 기독교의 기독교론과는 양립하기엔 여러 가지 한계를 지녔기 때문에 오늘날의 종교적 갈등 상황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 연구를 매듭짓고자 한다.

참고 문헌

- [1] Donald Baillie, *God Was in Christ: An Essay on Incarnation and Atonement*, New York: C. Scribner's Sons, 1948.
- [2] Paul Eddy, "John Hick and the Historical Jesus," In *The Convergence of Theology*, edited by Daniel Kendall and Stephen T. Davis. New York: Paulist Press, 2001.
- [3] Paul Eddy, *John Hick's Pluralist Philosophy of World Religions: An Exposition and Response*, Ph.D. diss., Marquette University, 1999.
- [4] Keith E. Eitel, "'The Way': Christ's Uniqueness and Its Bearing on Modern Missions," *Criswell Theological Review* 4, No.2, Spring, 1990.
- [5] Chester Gillis, *A Question of Final Belief: John Hick's Pluralistic Theory of Salvation*, New York: St. Martin's: 1989.
- [6] John Hick, "Christology at the Cross Roads," in *Prospect for Theology*, ed. F. G. Healey. London: James Nisbet, 1966.
- [7] John Hick, *Disputed Questions in Theology and the Philosophy of Relig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3.

[8] John Hick, *The Fifth Dimension: An Exploration of the Spiritual Realm*, Oxford: Oneworld, 1999.

[9] John Hick, *God and the Universe of Faiths: Essays in Philosophy of Religion*, New York: St. Martin's, 1973.

[10] John Hick, *John Hick: An Autobiography*, Oxford: Oneworld, 2002.

[11] John Hick, "Letters to the Editors: Incarnation," *Theology* 80, No.673, pp.204-206, January, 1977.

[12] John Hick, *The Metaphor of God Incarnate: Christology in a Pluralistic Age*, Louisville, TN: Westminster, 1993.

[13] John Hick, *The Myth of God Incarnate*, London: SCM, 1977.

[14] John Hick, "The Non-Absoluteness of Christianity," in *The Myth of Christian Uniqueness: Toward a Pluralistic Theology of Religions*, ed. John Hick and Paul F. Knitter, Maryknoll, NY: Orbis Books, 1987.

[15] John Hick, "A Pluralist View," in *More Than One Way?*, ed. Dennis L. Okholm and Timothy R. Phillips. Grand Rapids, MI: Zondervan, 1995.

[16] John Hick, "The Reconstruction of Christian Belief for Today and Tomorrow: 1," *Theology* Vol.73, No.603, pp.339-345, August, 1970.

[17] John Hick, "The Reconstruction of Christian Belief for Today and Tomorrow: 2," *Theology* Vol. 73, No. 603, pp. 399-405, September, 1970.

[18] John Hick, "A Remonstrance in Concluding," in *Jesus in History and Myth*, ed. by R. Joseph Hoffmann and Gerald A. Larue, New York: Prometheus Books, 1986.

[19] Clifford S. Hospital, "The Contribution of Keshub Chunder Sen toward a Global and Inductive Christology," *Journal of Ecumenical Studies*, Vol.19, No.1, pp.1-17, Winter, 1982.

[20] Geoffrey Lampe, *God as Spirit: The Bampton Lectures*, Oxford: Clarendon Press, 1976.

[21] Terrence Merrigan, "The Image of the Word," in *Newman and the Word*, ed. Terrence Merrigan and Ian T. Ker, Grand Rapids, MI: Eerdmans, 2000.

[22] Frank Whaling, ed., *The World's Religious Traditions*. New York: Crossroad, 1986..

[23] 이정배, "다원주의 기독교론과 토착화신학: 근대 이후시대에서의 토착화신학의 방향", 한국기독교논총, 제8권, pp.75-119, 1991.

[24] 제해중, "기독교적 관점에 따른 희의 신중심적 종교다원주의 비평", 한국조직신학논총, 제34집, pp.153-181, 2012.

저자 소개

제 해 중(Haejong Je)

정회원



- 1994년 2월 : Andrews University (M.Div. 신학 석사)
- 2009년 5월 : Andrews University (Ph.D. 조직신학 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신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종교, 언어, 문화 콘텐츠